산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Weekend

제1754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9월 9일 (음력 7월 17일) 토요일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9(土)	10(日)
비온뒤 갬	구름많음
18 / 23℃	15 / 23℃

News

- 美쇠고기 10월 초 유통 ②
- 학교납품 비리 뒷북행정 ③
- 함평골프고 신지애 우승 ⑱

Jeollado

- 그 사람-손수익 前장관 ⑦

Entertainment

- 인터넷 개인방송국 열풍 ⑧
- 프랑스영화 정수 한눈에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전어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탕 유혹에 털린 인생 새 삶으로 갚아가야죠"

"이번에는 터지겠지. 제발 한번 만, 한번 만… 결국 지갑을 다 털린 뒤에야 일어섰습니다." "끊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화투 짝만 보면 손이 떨립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 광주시 남구 월산동 동신대 사회복지회관 3층 사무실. 30대~50대 6명이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었다.

■ '斷도박' 회원들 굳은 결의

광주에 2개뿐인 '단(斷)도박' 모임 중 '월산동 모임'이 열리는 날(매주 화요일)이다. 참석자들은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도박의 유혹을 이겨낸 경험까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놨다. 이어 서로의 경험과 단 도박에 대한 다짐, 충고 등을 교환하며 1시간30분간의 일정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만난 단 도박 모임의 회원들은 너 나 할 것없이 가산 탕진은 기본이고 빚 때문에 자살 직전까지 간 아픔을 안고 있었다.

'바다이야기'에 재산 탕진

성인오락실로 인생을 망쳤다는 40대 초반의 Y씨(광주시 동구). 술에 취해 친구들과 성인오락실에 들른 게 화근이었다. 첫날 12만원을 잃은 Y씨는 본전 생각에 다음 날 다시 찾은 자리에서 100만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다. 다음 날부터는 오락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행운이 아니라 불운의 시작이었다. 이후 잭팟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 한 달 동안 200만원을 잃었고, 매달 잃는 액수가 커져 1년 만에 가족 몰래 해약한 적금을 포함해 5천만원을 날렸다.

스크린경마장, 성인오락실 등 안해 본 도박이 없는 그는 지난 해에는 '바다이야기'에도 올인했다. 그는 "'고래가 터졌을 때' 상품권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를 잊지 못해 이틀 밤을 새기도 했다"면서 "결국 10년 동안 집은 물론 5억원 정도의 재산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혼을 당해 가족까지 잃은 그는 "돈이 없어 밥도 하루 한끼 밖에 못 먹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박을 끊는 도박(?)을 하고 있다"며 각오를 새롭게 했다.

모임 대표 W씨(34·광주시 광산구)는 군 제대 후 심심풀이로 하던 '고스톱'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고 했다. 처음엔 '점'에 몇백원 짜리를 쳤지만 5개월이 지나지 않아 1만원짜리를 치게 됐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파트를 팔았고, 현금서비스는 물론 사채까지 얻어서 화투를 쳤다. 3억원에 달한 재산을 탕진하고, 빚도 1억원이나 지고 말았다.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는 빚쟁이들을 피해 6개월 간이나 도망다니기도 했다. 서른 살이 되던 해에는 제4수원지 난간에 올라가 뛰어 내리려고도 했다.

그는 "돈이 없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번 '강도 짓을 할까'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박을 하던 중 경찰 단속을 피해 2층에서 뛰어 내리다 장애자가 된 대학 강사, 집 사람이 유산한 줄도 모르고 도박을 한 죄책감에 몸부림 치는 회사원 등 참석자들의 사연은 기구하기만 했다.

"빚때문에 강도짓 생각도"

모임을 끝내고 일어서는 그들의 표정은 어둡지만은 않았다. 지난 1주일 동안 유혹에 끌리기는 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 때문인 듯 했다.

이들은 헤어지면서도 도박장소나 도박 얘기, 도박을 하는 사람 들과는 아예 접촉을 하지 말자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역 단도박 모임은 월산동 모임(376-7781)과 임동 모임(376-7781) 등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첫날 인파 8일 개막한 2006 광주비엔날레가 첫날 관람객 수만 5천명을 넘어서는 등 성공예감속에 65일간의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박광태 광주시장 등 내외빈과 참여작가,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에도 적자국채 9조 발행

黨政 내년예산 총 239조 편성

내년 예산과 기금 등 정부 총 지출액은 올해보다 6~7% 증가하는 239조원에 이른다. 복지부문에는 올해보다 10%가 늘어나는 61조~62조원이 투입된다. 〈관련기사 2면〉

하지만 정부가 부족한 나라살림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도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2007년 예산·기금 편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올해보다 7% 증가하는 252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 추경기준 224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39조원으로 6~7%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 진통

국회는 8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하고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군소야당과 협상을 벌이는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은 거듭된 의총을 통해 본회의엔 참가하되 표결엔 전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에도 불참,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도 진통을 겪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진돗개 유럽 첫 수출

프랑스 교포 한쌍 구입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가 유럽으로 첫 수출된다.

한국애견연맹 이병억 이사는 "지난 해 7월 아르헨티나에서 세계애견연맹(FCI) 공인 견으로 인정 받은 진돗개가 오는 23일 국제 혈통서로 유럽에 첫 수출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프랑스로 갈 진돗개는 14대의 부모견 혈통이 완벽한 황구 한 쌍이다.

이 개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구입한 진돗개로 세계 각국 3천700마리가 출전한 '프랑스 도그쇼'에서 세계 공인후 첫 국제대회에서 입선한 프랑스 교포 진예찬(28)씨가 기를 예정이다.

진씨는 "앞으로 프랑스에 진돗개 협회를 만들어 유럽 여러나라에 진돗개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